

협업 : 자사 이기주의와 정파성을 넘어

뉴스타파 심인보

기술유출 누명 삼성전자 전무 사건 (2018.5.17)

뉴스타파 - KBS - 프레시안 공동 보도
취재는 각각, 보도는 같은 날 따로

“주요 이슈를 공유하면서도 각 매체의 특성에 맞게 협력하여 상생을 시도한 세 개 언론사의 협업은 의미 있는 시도” (민언련 방송-온라인 부문 특별상)

보도 이후 2심 및 대법원 무죄 판결 : 기사가 증거로 제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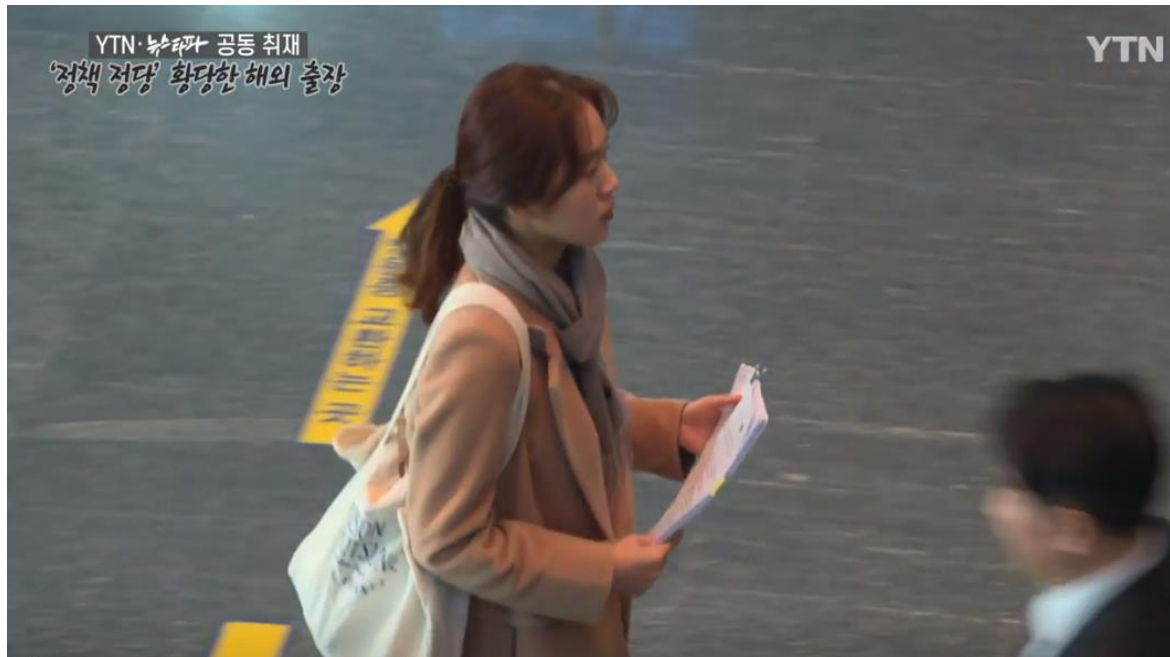
가짜 학문 제조공장의 비밀 (2018.7.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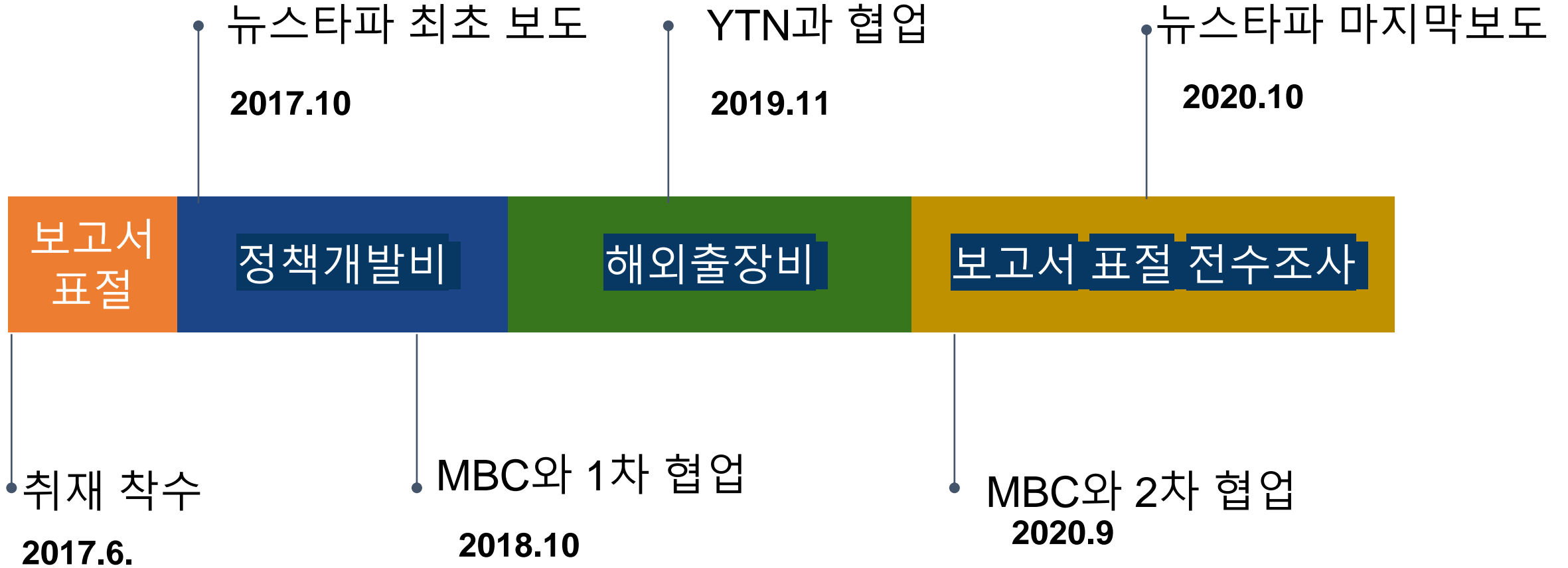
MBC 메인뉴스에 뉴스타파 기자가 리포트 및 출연
독일 NDR → 뉴스타파 → MBC 순으로 협업 제안
보도 이후 과기정통부 전수조사

국회의원 예산 오남용 보도 (2017.10-2020.10)

뉴스타파 - 시민단체 협업으로 자료 취득 및 분석
3년 동안 80건 이상의 자체 보도 - 3차례 협업 보도 성사 (MBC, YTN)
보도 이후 제도 개선



국회의원 예산 오남용 취재 - 보도 타임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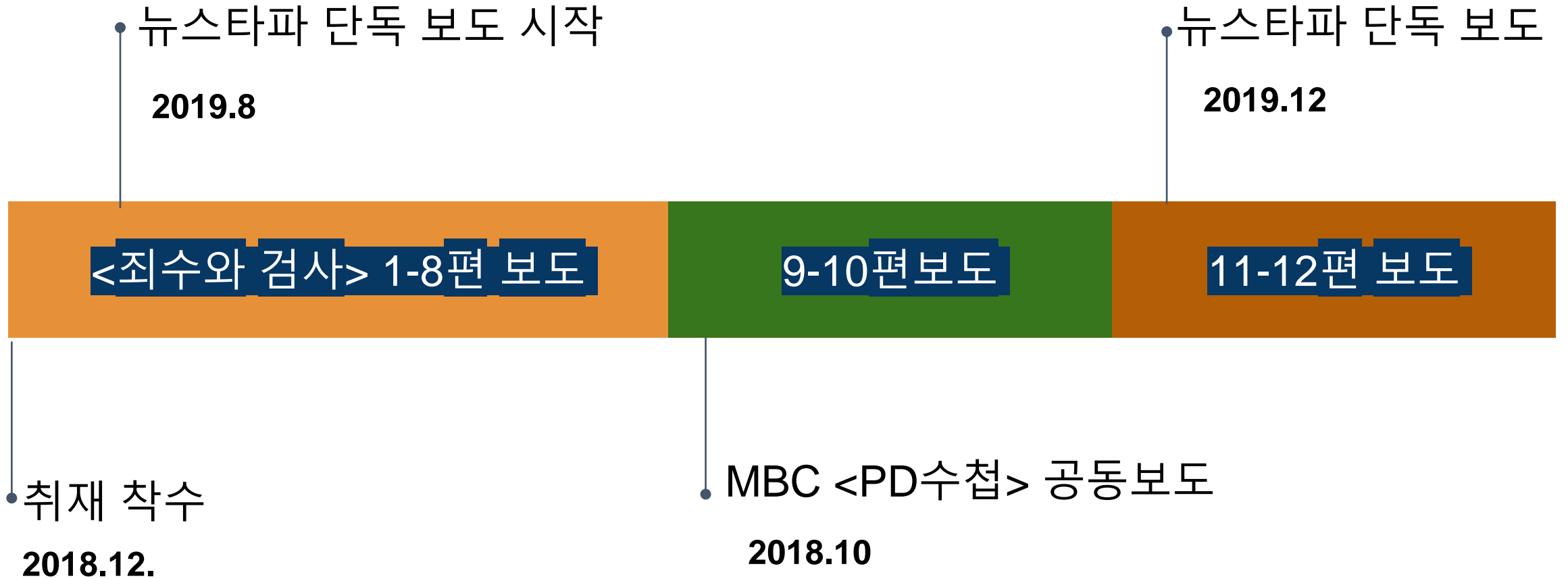


<죄수와 검사> (2019.8 - 2019.12)

MBC 피디수첩과 공동 보도
불법 출정, 전직 검사와 금융재벌의 비리, 현직 검사들과의 유착
보도 이후 구속 수사와 제도 개선



<죄수와 검사> (2019.8-12)



전두환 프로젝트 (2019.8 - 2019.12)



전두환 일가 및 잔당 재산 추적
광주 학살 당시 비밀 문건 취재
15회 시리즈 기사 보도 이후 KBS <시사직격> 공동 보도

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(2018.10 - 2019.1)



뉴스타파 - 설록 - 프레시안 공동 취재/보도
독립매체간 협업
보도 뿐 아니라 취재에서도 협업 이루어진 사례
보도 이후 양진호 징역 7년

왜 협업이 필요한가?

혼자서는 해내기 어렵다.

독자들이 요구하는 기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

→ ‘쉽게 쓰여진 기사’는 쉽게 비판받는다.

혼자서는 널리 알리기 어렵다.

공론장의 변화 : 단일 여론 시장에서 각자의 필터 버블 속으로

→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 및 신뢰 약화

→ 단독 보도나 탐사보도물에 대한 상호 외면

정파성의 질곡

협업의 조건 (feat. 안되는 이유)

‘사실’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

이해 관계 : 줄 것과 받을 것

ex : <취재력 및 소스 vs 영향력>

또는 <인력 vs 아이디어> 또는 <영상 vs 글>

자사 중심주의의 유예

‘공급자 마인드’ 버려야 - 인용, 바이라인 표기 등

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이해

협업의 Tip

상호 존중

창구 단일화

다소의 비효율 감내

사전에 조건을 명확히